

듀이십진분류법의 지역 보조표에서 한국 지역 구분의 수정 전개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ifications and Expansions of Area Divisions of Korea in Auxiliary Table of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정연경(Yeon-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3.1 듀이십진분류법 |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2 국제십진분류법 |
| 1.2 연구 방법 및 내용 | 3.3 일본십진분류법 |
| 1.3 선행연구 | 3.4 한국십진분류법 |
| 2. 지역 구분을 위한 보조표 | 3.5 위키백과 |
| 2.1 듀이십진분류법 | 3.6 한국행정구역분류 |
| 2.2 국제십진분류법 | 3.7 비교 분석 |
| 2.3 일본십진분류법 | 4. 듀이십진분류법의 한국 지역구분 개선 방안 |
| 2.4 한국십진분류법 | 5. 결론 |
| 3. 한국의 지역구분 | |

초 록

본 연구는 십진분류법인 DDC, UDC, KDC, NDC의 지역구분 보조표의 구조와 그 안에서 한국 지리 구분 전개에 관해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분류표 안에서 지역구분 보조표의 번호와 분류항목명을 기술하고 그 특징을 논하였으며 서로 다른 십진식 분류표에서 지역 구분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사항과 차별화되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위키백과와 한국의 행정 구역 분류도 조사하여 십진식 분류법과 다르게 한국을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관한 지역구분의 전개가 가장 적게 이루어진 DDC를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한 전개 방안을 기본 원칙과 임의조항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향후 십진분류법 개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structures of auxiliary tables regarding places - for example, Korea using several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s such as DDC, UDC, KDC and NDC. For each auxiliary table, the codes were described in detail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were discussed. The common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t aspects of different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s were investigated as well as divisions of Korea in Korean Wikipedia and an administrative district classific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a new basic summary for the expansion of codes of Korea in auxiliary table in DDC with its principles and options and it will be useful for revising process of man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s.

키워드: 십진식 분류, 보조표, 지역 구분, 장소 구분, 듀이십진분류법, 국제십진분류법, 한국십진분류법, 일본십진분류법, 확장, 개정, 한국, 북한, 남한
Decimal Classification, Auxiliary Table, Area Division, Place Division, DDC, UDC, KDC, NDC, Expansion, Revision, Korea, North Korea,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7월 13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8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181-201,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181]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90년대 이후 세계화 논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간으로서의 지역 개념과 지역 연구에 대한 문제가 부상하게 되었다. 세계화로 인해 지역 연구가 쇠퇴할 것처럼 보이면서도 의외로 지역성, 장소, 토착성에 기반을 둔 지식생산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 세계화의 보편주의와 지역성이 갖는 특수성이 서구와 비서구화, 세계화와 지역의 이분이 아니라 세계화와 지역의 특수성을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김미덕 2011). 그래서 현대사회는 전 지구적 문화와 지역 문화가 공존하면서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문화적 현상이 지배하는 시대이다(홍석준 2010). 그러므로 세계화 추세 안에서 지역 연구의 중요성과 특수성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정보조직에서의 지역 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문헌분류표에서 이러한 지역구분을 나타내기 위해 지리라는 주제를 본표 내에 두기도 하고 보조표 중 하나의 형식으로도 있는데, 많은 문헌분류표가 보조표의 지역 전개 내역을 토대로 하여 본표 내의 지역에 관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김자후 2011). 그러므로 보조표의 전개 내역은 분류표 안에서 조기성을 띠고, 본표의 지리 주제 전개로 바로 연결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분류 원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류지로 세분될 수 있고 분류 원리는 전체 분류표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리는 학문적으로 지형, 기후, 식생 등과 같은

자연 지리와 행정, 경제, 언어, 교통 등과 같은 인문 지리를 포함하는 현상을 가리키지만, 지역은 동질적인 특징을 갖는 지구라는 사회적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지리라는 독립된 분류지로 존재하면서 특정 분류 내에서 또 다른 하위분류의 속성인 지역을 사용하게 되는 공간 분류의 경우, 일관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문헌분류표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듀이십진분류법의 지역 구분 보조표에서 한국 지역구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류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듀이십진분류법은 각국의 십진식 분류법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 지역 구분에 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다양한 십진분류법의 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분류표 중 대표적인 십진분류법인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DDC) 제23판(Dewey 2011), 국제십진분류법(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UDC) 제3판(표준판)(British Standard Institution 2005), 일본십진분류법(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NDC) 신정9판(國立國會圖書館 2005),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 제5판(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09)의 보조표에 나타난 지역구분을 위한 보조표를 분석하고 살펴보았다.

십진분류법에 나타난 지역 구분 보조표와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 지역구분의 문제점과 기존의 방안에 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DDC, UDC, NDC, KDC 지역구분 보조표의 특성과 함께 그 안에서 한국의 지역 구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 지역 구분이 갖는 한계를 짚어보았다. 더불어 한국 지역의 다양한 구분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위키백과를 참고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한국의 행정구역 분류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북한의 현행 행정구역 체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DDC의 지역 보조표에서 한국의 지역 구분 확장을 제시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3 선행연구

지역 구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헌정보학과 지리학에서 이루어졌다. 이창수(1991)는 역사 및 지리류에서 DDC의 지역구분표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후 이창수(1992)는 역사 및 지리류에 대한 조합식 분류를 제안하였다.

정혜성(1998)은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보조표의 하나로 장소구분을 위한 지리 구분을 콜론 분류법, DDC, UDC, BC(블리스 분류법, Bliss Classification)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장소에 대한 개념은 정치적, 행정적 성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김중천(2000)은 현대 중국의 주요 문헌분류법에 설정된 보조표의 종류와 내용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고찰하였는데, 지역 구분에서 지역 균형 감각의 결여와 다민족국가의 정치적 배려를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오동근(2001)은 DDC 21판을 대상으로 한국 및 동양관련 항목의 재전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2보조표와 제5보조표, 제6보조표를 우선적으로 재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류와 서예류의 재전개 안을 제시하였으며, 역사, 지리, 언어, 문학 총류 등의 관련 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은철 등(2003)은 대학도서관의 자원 공유를 위한 DDC의 한국, 중국, 일본 관련 항목의 표준전개표 개발을 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의 재전개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창수(2003)는 지역구분과 시대구분이 중심이 되는 지리·전기·역사류에 있어서 UDC의 전개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KDC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임과 남태우(2003)는 DDC 21판, KDC 4판, NDC 9판을 중심으로 십진분류법에서의 보조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KDC 보조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곽철완(2004)은 외국 분류체계와 국내 공공기관의 지역범주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 지리 구분 분류체계 구축방향으로 3단계의 계층구조로 나누고 최하위 지역범주는 2-3개의 소규모 시나 군을 모으거나 대규모 1개 시를 범주로 설정하였으며 각 단계의 나열 순서는 그 지역의 중심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나열하는 형태를 제시하였다.

정필모(2007)는 DDC 22판의 보조표를 분석하면서, 분류표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보조표가 유용하지만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많아지는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지역 구분표는 가장 방대한 보조표인데, 전반적으로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균등하게 전개되지 못했고 필요 이상으로 세분 전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남태우 등(2008)은 KDC 4판의 지역구분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십진식과 비십진식 주요 분류법에서 지역 구분 원칙을 분석하고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기관 지역구분 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DC 4판의 한국 지역구분표의 개선안, 공공기관의 행정구역분류 체계와의 연관성 및 일관성 유지와 다양한 지리 현상을 반영한 추가적인 지역구분 기준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미덕(2011)은 지구화의 보편주의에 맞서는 아시아 지역 연구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구화와 지역화의 이분적 패러다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성과 실재를 강조하는 사실주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구동회(2011)는 지역구분을 지역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보고 세계지역구분의 기준과 방법들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와 외국의 중등 및 대학 교재의 세계지역구분체계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김자후(2011)는 KDC 5판에서 시간(시대 및 연대 구분) 및 공간(지리 및 지역구분)의 전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KDC 5판, DDC 22판, NDC 9판을 분석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류표에서 공간적인 측면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지역 구분의 한계와 재전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에 관한 지리 구분이 십진식 분류표의 보조표와 본표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십진식 분류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지역 구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므로 십진식 분류표의 한국지역구분에 대한 자세한 비교 분석을 통해 좀 더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지역 구분을 위한 보조표

열거식 분류표에서 본표는 모든 주제를 본표에 모두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표에는 기본 주제와 하위 주제를 열거해 놓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별도의 표, 즉 보조표를 만들어 사용한다. 이렇게 보조표를 활용하여 얻게 되는 효과는 분류표의 외형적 부피를 감소시키고 분류표에 조기성을 가져와서 동일한 개념에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되며 분류표의 조직이 단순하고 간결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조표는 분류표의 모든 주제나 특정 주제, 그 하위 주제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보조표의 기호들이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일정하게 강력한 조기성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DDC 이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열거식 분류표들은 여러 개의 보조표를 마련하여 개념을 자유롭게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주제를 좀 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주제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역구분을 위한 보조표는 어떤 주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다루어졌을 경우, 그 특정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는 장치이다. 지역에 대한 개념은 각 주제에 대해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었거나 특정 지역의 역사에 대한 개념을 다룬 것으로 일반적인 지역(대륙, 국가, 지방),

수면의 형태에 따른 지역(대양, 바다, 강), 자연 지리적인 형태(사막, 산) 및 인구분포에 따른 지역(시, 읍, 면 등)이 보조표에 포함되어 있다(정해성 1998). 그래서 이 보조표는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보조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구분은 개개의 장소가 열거되어 보조표 중 범위가 가장 방대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1 듀이십진분류법

DDC의 지역구분표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다루어질 때 사용되며 전 세계의 자연적 구분과 지리적, 지구물리학적 구분도 포함하고 있어서 DDC 전체 보조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방대한 보조표이다. 지역구분표가 별도의 완전한 보조표로 나온 것은 제17판부터이지만 그 전부터 역사류의 지역별 역사는 930~999와 같이 지역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이창수 1991).

제2보조표의 기호 중 -01-05는 역사적인 시대 구분이고 -2는 장소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한

항목이며 실제로 장소에 관련되는 항목은 -1과 -3-9이다. -1은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단위 이외의 지형, 해양, 기후, 사회 경제적인 지역과 같은 일반적인 성격을 기초한 지역구분이고, -3-9는 실제의 지역구분으로 -3은 고대 문명을 위한 지역구분이고, -4-9는 현대 국가를 위한 행정적 지역구분이다. 현대 국가의 지역구분을 위해 전 세계를 6개의 대륙으로 나누어 구대륙에서 신대륙의 순서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기타 지역에 4부터 9까지의 번호를 순서대로 주었다(〈표 1〉 참조).

지역구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보조표를 두어 각 분류기호에 첨가하여 세분화하는 원칙을 〈표 2〉와 같이 갖고 있다. 그러나 제2보조표인 지역구분표는 전반적으로 분류 기호의 자리수가 균등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필모(2007)는 국가 면적이 거의 비슷한 중국 지역을 47개 항목으로 구분한 반면에 미국을 4,058개의 항목까지 나누어 지역구분번호의 자리수가 7자리까지 전개되는데, 그 유용성을 짚어보고 최소한 4자리수 이하로 균등하게 배분

〈표 1〉 DDC 23판(2011)의 제2보조표

지역구분표 번호	분류항목명
-1	Standard subdivision(표준세구분, 일반지역 - 지형, 기후, 사회적 구분)
-2	Persons(인물)
-3	Ancient World(고대세계)
-4	Europe(유럽)
-5	Asia(아시아)
-6	Africa(아프리카)
-7	North America(북미)
-8	South America(남미)
-9	Other parts of world, Australia, Pacific, Polar Region(기타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극지방)

〈표 2〉 DDC 23판(2011)의 제2보조표의 전개 및 내용

단계	구분내용
1단계	-1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구분 -3 역사적 고대 국가 -4-9 현재 지역 대륙별 구분
2단계	1단계를 한 국가를 여러 지방으로 구분하여 다른 분류기호를 부여하거나 한 국가에 하나의 분류기호를 부여하거나 여러 국가를 묶어 분류기호를 부여
3/4단계	2단계를 지역 특성에 따라 한 국가에 분류기호를 부여하거나 2개 이상의 국가를 모아서 분류기호를 부여하거나 한 국가의 여러 지방 행정구역을 모아서 분류기호를 부여하거나 한 국가의 행정구역 하나에 분류기호를 부여
5단계	3단계와 4단계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분류기호를 부여
6단계	5단계 지역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분류기호를 부여하거나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모아서 분류기호를 부여
7단계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극히 일부 지역에 한하여 분류기호 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조표를 사용해서 분류번호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2.2 국제십진분류법

UDC는 1905년 DDC 제5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래 분야별, 국가별로 개정되어왔으나, 최초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두고 당시의 학문 발전에 따라 분류번호를 세분시키는 형식으로 변화되어 왔다(Foskett 1996). 특히 지역구분이 중심이 되는 지리, 전기, 역사류에서는 DDC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UDC의 태생적 특징 때문에 조기성을 부여하여 조합식 분류 전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인 공간 구분을 위한 장소공통보조표(Common auxiliaries of place, Table 1e)는 〈표 3〉과 같이 (1/9)로 나타나며 UDC의 공통보조표 중 다른 분류기호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주제 번호 앞, 뒤, 중간 및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 일본십진분류법

NDC는 1929년에 간행되기 시작하여 신정 9판(2009)까지 나왔다. NDC는 DDC의 제2보조표와 유사한 고유지역보조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해양과 관련된 자료를 분류하는데 쓰이는 해양구분표를 가지고 있다. NDC의 지역구분표는 이전에는 세계를 대륙별로만 구분하던 것을 신정 9판부터 국가구분까지 세분 전개하였다. 지역의 나열순서를 살펴보면 자국 및 아시아를 우선으로 구분한 후, 아시아 이외의 지역구분은 DDC와 마찬가지로 구대륙에서 신대륙 순으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맨 앞 주류기호 -1에 배정하고 아시아 -2, 유럽 -3의 순서로 구분하고 있다. 자국문헌이 많기 때문에 자국의 분류기호가 짧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개념의 계층적 전개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며 단순히 행정구역만 전개하여 강, 산, 산맥 등과 같은 자연 및 인문지리 항목이 세분 전개되지 않은 것이 한계점이다(〈표 4〉 참조).

〈표 3〉 UDC 3판(2005)의 장소공통보조표

기호	분류항목명
(1/9)	Common Auxiliaries of place. Table 1e.(지역공통보조표, 보조표 1e)
(1)	Place and space in general. Localization, Orientation(지역 및 공간 일반, 국한, 방위)
(100)	Universal as to place. International, All countries in general(지역 일반, 국제, 국가 일반)
(2)	Physiographic designation(지문학적 명칭)
(3/9)	Individual places of the ancient and modern world(고대 및 현대의 개별 지역)
(3)	Places of the ancient and mediaeval world(고대 및 중세의 지역)
(4/9)	Countries and places of the modern world(현대 국가 및 지역)
(4)	Europe(유럽)
(5)	Asia(아시아)
(6)	Africa(아프리카)
(7/8)	America, North and South, The Americas(북미 및 남미, 아메리카대륙)
(7)	North and Central America(북미 및 중미)
(8)	South America(남미)
(9)	States and regions of the South Pacific and Australia, Arctic, Antarctic(남태평양 및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북극 및 남극)

〈표 4〉 NDC 신정 9판(2009)의 고유지역보조표

지역구분표 분류번호	분류항목명	지역구분표 분류번호	분류항목명
-1	일본	-5	북미
-2	아시아	-6	남미
-3	유럽	-7	오세아니아
-4	아프리카	-8	양극지방

2.4 한국십진분류법

KDC는 1964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판이 발간되어 2009년에 제5판이 발간되었다. KDC 제4판까지는 지역구분표가 국가 단위로 간략하게 전개되고 900 역사류 안에서 세분 전개되었으나 제5판에서는 지리 분야와 국가별 지역구분에 대해 상세한 전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한국에 제일 먼저 오는 번호를 할당 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DDC의 열거순서를 따

르고 있다(〈표 5〉 참조).

KDC의 지역구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계층 구조를 적용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지역구분을 다르게 전개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철완(2009)은 향후 개정될 KDC 6판에서는 현재 출판되는 자료의 양을 고려하여 적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한 지역분류 전개에 있어서 광역시가 각 도의 아래에 분류 되어있거나 행정구역상 완전히 다른 도 아래

분류되어 있는 계층 구조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행정구역의 경우, 그 명칭이나 소속 시와 군이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분을 시와 군까지 전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5〉 KDC 5판(2009)의 지역 보조표

지역구분표 번호	지역구분표의 분류항목명
-01	지역 일반
-1	아시아
-2	유럽
-3	아프리카
-4	북미
-5	남미
-6	오세아니아
-7	양극지방
-8	해양

3. 한국의 지역구분

3.1 듀이십진분류법

DDC의 제2보조표에 나타난 한국에 관한 지역구분은 총 3개로 〈표 6〉과 같다. DDC에서의 번호 전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을

중국 및 부속 지역의 국가로 보고 중국 아래에 세분하였으며 한국 아래의 세부 전개로 북한과 남한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세분 항목이 46개, 일본의 세부 항목이 66개인 것에 비하면 한국은 2개로 지나치게 단순한 구분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문헌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이는 지나친 대략 분류이다.

3.2 국제십진분류법

2006년 11월에 발간된 Extensions and Corrections to the UDC(No.28)의 한국관련 장소 보조표를 보면 DDC와 마찬가지로 중국 아래 한국을 놓고 있으며,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의 순서로 지역구분과 유사하게 배열하고 있다(UDC Consortium 2006: 재인용 이창수 2008, 312-313). 북한과 남한을 북부 지방과 남부지방으로 구분하여 번호의 길이는 상관하지 않되 계층관계는 명확히 하고 있다. 특별시와 직할시, 광역시 그리고 도청소재지를 인접 광역시에 두고 있는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각도에 해당 도청소재지를 함께 나열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섬도 포함주의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6〉 DDC 23판(2011) 제2보조표에서의 한국 지역 구분

-5 Asia(아시아)
-51 China and adjacent areas(중국 및 부속 지역)
-519 Korea(한국)
-5193 North Korea(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북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5195 South Korea(Republic of Korea) (남한, 대한민국)

〈표 7〉 Extension and Corrections to the UDC(2006)에서 한국지역 구분

(5) Asia 아시아

(510)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중화민국

(519) Korea 한국

(519.3) North Korea, People's Demographic Republic of Korea, Chosŏn Minjujuŭi Inmin Konghwaguk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519.31) 북부지방

(519.311) 함경북도, 청진

(519.312) 라선직할시* (현재는 라선특별시임)

(519.313) 함경남도, 함흥

(519.314) 양강도, 해산

(519.315) 자강도, 강계

(519.316) 평안북도, 신의주

(519.317) 평안남도, 평성

(519.33) 남부지방

(519.331) 평양특별시* (현재는 평양직할시임)

(519.332) 남포특별시

(519.333) 황해북도, 사리원

(519.334) 황해남도, 해주

(519.335) 개성특별시

(519.336) 강원도, 원산

(519.5)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Taehan Min'guk, 남한, 대한민국

(519.51) 북부지방

(519.511) 경기도, 수원

(519.512) 서울특별시

(519.513) 인천광역시

(519.514) 강원도, 춘천

(519.515) 충청북도, 청주

(519.516) 충청남도

(519.517) 대전광역시

(519.53) 남부지방

(519.531) 경상북도

(519.532) 대구광역시

(519.533) 경상남도, 창원

(519.534) 울산광역시

(519.535) 부산광역시

(519.536) 전라북도, 전주

(519.537) 전라남도, 무안

(519.538) 광주광역시

(519.5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3.3 일본십진분류법

〈표 8〉과 같이 NDC 선정9판의 고유지역보조표에서는 한국을 '조선'이라 하고 크게 7개의 지방과 2개의 도로 나누고 있다. 북한과 남한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북에서 남으로 각 지방을 권역별로 크게 나누고 있다. 관북지방은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포함하는 지방으로 현재는 량강도, 라선특별시 일대를 가리킨다. 서북지방은 관서지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평양직할시, 자강도 일대를 포함한다. 황해도는 중서부에 있는 도로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호서지방은 충청도, 호남지방은 전라도, 영남지방은 경상도를 각각 가리킨다. 특징은 분류 항목명이 현대적인 행정구역명이 아닌 태백산맥이나 임진강 등의 자연 지형이 나누는 지역의 생활권에 따라 나누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명칭은 오랜 시간을 통해 정착되었으므로, 일정한 사회적인 규약처럼 굳어져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한국 지리 구분명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표 8〉 NDC 선정9판(2009)의 고유지역 보조표에서 한국 지역 구분

2 アジア, 東洋	아시아, 동양
21 朝鮮	조선
211 關北地方	관북지방
212 西北地方	서북지방
213 黃海道	황해도
214 京畿地方	경기지방
215 江原地方	강원지방
216 湖西地方	호서지방
217 湖南地方	호남지방
218 嶺南地方	영남지방
219 濟州島	제주도

3.4 한국십진분류법

〈표 9〉와 같이 KDC는 한국지역구분을 행정구역체계에 기반을 둔 시, 도로 나누었으며 전국을 9지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지역에 도를 앞세우고 시와 군을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

〈표 9〉 KDC 5판(2009)의 한국지역구분표

-
- 1 아시아
 - 11 대한민국
 - 111 관북지방
 - 1111 함경북도
 - 1112 나선특별시
 - 1117 함경남도
 - 112 관서지방
 - 1124 평안북도
 - 1127 평안남도
 - 1129 평양직할시
 - 113 해서지방
 - 1131 황해북도
 - 1135 개성특별시
 - 1136 황해남도
 - 1139 강원도(북한지역)
 - 114 강원도
 - 115 경기도
 - 1155 인천광역시
 - 116 서울특별시
 - 117 충청도
 - 1171 충청북도
 - 1175 충청남도
 - 1179 대전광역시
 - 118 경상도
 - 1181 경상북도
 - 1184 대구광역시
 - 1186 경상남도
 - 1189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119 전라도
 - 1191 전라북도
 - 1195 전라남도
 - 1196 광주광역시
 - 1199 제주특별자치도
-

다. KDC의 한국지역구분표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범주의 계층구조에서 광역시가 해당도의 아래에 포함되어 있으며, 광역시 이하의 세분 전개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반면 행정구역체계상 광역시 아래의 구와 동일한 계층의 군과 광역시가 동일계층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인문·자연 지리적으로 지역성이 완전히 다른 제주도가 전라도의 하위계층에 포함되어있다. 또한 각 지역의 나열 순서도 북한을 가장 먼저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분류체계에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광역시를 우선하여 배열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문헌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분류기호를 배정하는 것에도 위배가 된다. 그래서 남태우 등(2008)은 KDC의 유연성 부족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 표현의 어려움, 북한지방부터 나열한 점, 도를 시나 군의 범주와 동일 계층에 배치한 점, 도 아래에 광역시 배치, 제주도의 전라도 아래 배치를 한국지역구분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표 9〉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과 남한의 지역구분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3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도와 직할시를 동일계층에 두었고 남한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5개의 도와 서울특별시로 구분하고 5도 아래에 북도와 남도, 광역시를 동일 계층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의 5도는 NDC의 지방과 같은 개념으로 강원도는 강원지방, 경기도는 경기지방, 충청도는 호서지방, 경상도는 영남지방, 전라도는 호남지방을 의미하므로 지방이란 표현 대신 도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가

호남지방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는 십진식 분류법의 한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분지 하나를 없애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나의 구분지로 주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NDC처럼 서울특별시를 경기 지방 아래에 두는 방식을 KDC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서 전라도 아래에 들어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나머지 도와 동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향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3.5 위키백과

한국판 위키피디아인 '위키백과'에서는 한국 지방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관습에 따른 구분으로 보통 산맥이나 강, 고개와 같이 자연지형이 나누는 지역 생활권에 따라 관서지방, 관북지방, 영서지방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명칭들은 오랜 시간 정착되어 사회적 규약처럼 사용된다. 이들은 NDC에서 사용한 한국 지역의 항목명들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방위적 위치에 따른 구분으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는데, 고유한 지역명을 생성하는 기준이기 보다는 앞서 제시한 관습적 지역을 범주화하는 일종의 상위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는 광역 행정에 따른 구분인데, 한국의 행정구역 분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남한)을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1직할시 2특별시 1특급시 9도로 나누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위키백과의 한국 지역 구분 방식

구분 방식	지방/지역	하위 지역 및 설명
관습	관서지방	조선시대의 평안도 지역으로 서북지방이라고도 함 현재 평양직할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남포특별시
	관북지방	조선시대의 함경도 지역 현재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라선특별시 지역
	관동지방	강원도 지역 현재 태백산맥 기준 영서지방 및 영동지방
	영동지방	태백산맥 기준 동쪽(강릉시)에 위치한 강원도 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기준 서쪽(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도 지역
	영남지방	조선시대의 경상도 지역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호서지방	조선시대의 충청도 지역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지방	조선시대의 전라도 지역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기호지방	경기지방, 호서지방, 황해도를 통칭
	해서지방	조선시대의 황해도 지역 현재 황해남도, 황해북도
	경기지방	전통적으로 '수도'가 있는 곳을 가리킴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방위적 위치	북부지역
중부지역		경기지방, 관동지방, 해서지방
남부지역		영남지방, 호남지방, 호서지방
광역 행정	대한민국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직할시 2특별시 1특급시 9도)	평양직할시, 개성특급시, 남포특별시, 라선특별시,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평남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 세종특별자치시를 1특별자치시로 추가하였으나, 현재 한국 행정구역 상에 없으므로 제외시켰음.

** 자료: 위키백과 > "한국의 지방 구분"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한국의_지방_구분&oldid=8947974).

3.6 한국행정구역분류

행정구역이란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단위를 뜻하며, 국가의 행정 사정에

따라 구역이 달라진다. 행정구역은 국가의 행정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정현 2012). 우리나라의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로 구분되

어 있으며, 행정구역의 조정 및 관리는 중앙행정부서인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국에서 관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2)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행정 구역을 <표 11>과 같이 구분하였다(행정안전부 2012).

대한민국(남한)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와 8개도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로 구분된다. 북한은 수도인 평양직할시와 2개 특별시인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9개도인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

구분을 바탕으로 통계청은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지역자료의 분류와 집계, 비교를 목적으로 '한국행정구역분류'를 만들었다. 한국행정구역분류는 전국을 대분류(시·도), 중분류(시·군·구), 소분류(읍·면·동)의 3단계로 분류하고 행정구역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호화하였다(통계청 홈페이지, "행정구역분류").

통계청 이외에도 한국 행정구역의 분류는 국내 우편번호나 시외전화번호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례로 국내 우편번호 체계를 첫째 자리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1, 강원도 2,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가 3,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는 5,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도는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는 7로 설정

<표 11> 한국행정구역 분류

구분	대한민국		분류코드	북한				
	특별시	광역시		직할시	특별시			
행정 구역	서울		11	직할시	평양직할시			
	부산	부산		21	특별시	나선특별시		
		대구		22		남포특별시		
		인천		23		평안남도		
		광주		24		평안북도		
		대전		25		함경남도		
		울산		26		함경북도		
	도	경기		31	도	황해남도		
		강원		32		황해북도		
		충북		33		강원도		
		충남		34		자강도		
		전북	전남			36	양강도	
							경북	37
		경남		38				
		특별자치도	제주			39		

되었다(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안내”). 우편번호 체계는 하위 시·군·구의 규모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충청도와 전라도는 경상도와는 달리 남도와 북도가 동일한 첫째 자리를 갖고 행정구역 구분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7 비교 분석

한국의 지역구분과 관련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 크게 3가지 권역을 중심으로 각 분류표에서 전개한 항목의 개수를 조사한 결과, DDC는 2개, UDC는 35개, NDC 9개, KDC 30개, 행정구역 분류는 28개였다. 위키백과는 기존 문헌분류표와 행정구역을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비교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비교 결과, DDC와 NDC의 항목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으며, UDC의 항목 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매우 특징이었다. 그러나 KDC에서도 하위에 시·군·구까지 지역을 세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분류 항목의 수는 UDC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지역구분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DDC는 항목 수 자체가 2개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으로 매우 단순하게 구분하고 있었으며, NDC는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을 9개 권역으로만 크게 나누었다. 그래서 강원도는 NDC는 강원지방이라는 1개 항목이 있는 반면, UDC와 KDC, 행정구역 분류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2개 항목으로 전개되었다. 항목 수가 많았던 KDC와 UDC, 그리고 행정구역 분류의 경우는, 1차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구분한 다음, 하위로 도와 시를 전개하였다. 다만

UDC와 KDC 간의 차이점은 UDC는 광역시를 도와 구분하여 독립된 세목으로 다룬 반면, KDC는 광역시를 도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하고 도 아래 전개한 것이다. 또한 UDC는 평안(남·북)도를 북부지방으로, 평양직할시는 남부지방으로 전개하였으나, KDC는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평양직할시를 관서지방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구역 분류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를 모두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지역의 분류 항목 구분 방식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우 2개~3개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이를 나타내는 명칭들은 분류표마다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포괄하는 지역명을 KDC는 ‘관서지방’으로 NDC는 ‘서북지방’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 2개~4개 지역으로 크게 범주화하였는데, 충청도를 KDC는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설정한 반면, UDC는 북부지방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대전광역시로 세분하여 기호를 부여하고, NDC는 호서지방으로만 전개하였다.

한국 지역의 분류 항목의 배치 순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제1단계 배치 순서로 수직 방향, 즉 북에서 남으로 항목을 배열하였다. 지방 권역별 배치를 살펴보면, NDC는 UDC, KDC와는 달리 전라도(호남지방)를 경상도(영남지방)보다 선치하였다. 그리고 전개 항목 수가 많은 UDC와 KDC의 경우에는 제2단계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항목을 배치하였다. UDC는 북부 및 남부 지방 아래 도를 선치하고 다음으로 특별시(북한은 직할시), 광역시(북한은 광역시) 순으로 배열하였다. 또한 수도인 평양직할

〈표 12〉 문헌분류표 및 행정구역의 지역구분 비교

비교내용		DDC	UDC	NDC	KDC	행정구역
항목 개수	남한	1	19	6	18	16
	북한	1	16	3	12	12
	합계	2	35	9	30	28
지역구분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과 북한으로 크게 양분하고 시도수준으로 세분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과 남한을 각각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구분한 다음, 도와 시를 하위 구분함 특별시, 광역시는 각각 독립 세목으로 전개하고 도·시는 하나로 묶어서 전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과 북한의 구분 없이 지방(권역)별로 전개하고 시도수준으로 세분하지 않음 행정구역이 아닌 지리구분 방식을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아래 남한과 북한의 구분 없이 도 수준으로 세분함 특별시는 독립 세목으로 두고, 도 아래 광역시를 전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은 특별시, 광역시, 도로, 북한은 직할시, 특별시, 도로 전개함
항목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남으로 배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수직): 북→남으로 배치 2단계(행정구역): 도 > 특별시(북한은 직할시) > 광역시(북한은 특별시) 순으로 배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남으로 배치 전라도(호남지방)를 경상도(영남지방)보다 선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수직): 북→남으로 배치 2단계(행정구역): 특별시·직할시는 도 아래 배치되 다른 시보다 후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및 시도조례에서 정한 행정구역순에 의거함

시는 남부지방 아래 다른 지역보다 가장 먼저 배치하였다.

한편, KDC는 특별시와 도를 먼저 배열한 다음, 도 아래 광역시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남한 영역에 속한 강원도의 경우 UDC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다음에 배치한 반면, KDC는 남한 지역 구분에 가장 먼저 놓고, 다음으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배치한 것에서 차이가 났다. 한국행정구역분류의 일련번호 코드를 기준으로 하면, 남한의 특별시와 광역시를 가장 먼저 둔 다음, 도와 특별자치도 순으로 배열하였다.

따라서 지역구분 방식을 전반적으로 비교하

면, KDC는 NDC의 구조와 가장 비슷하되, 항목의 배치 순서나 명칭이 다소 차이가 났으며, 행정구역 분류를 반영하여 좀 더 세분화시켰다. 한편 UDC는 최상위에서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구분한 것으로 제외하면, 하위 전개 항목들은 우리나라 행정구역 분류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4. 듀이십진분류법의 한국 지역 구분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십진분류법에서 지역

구분 방식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구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전개가 매우 부족한 DDC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DDC는 이미 138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14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판이 이미 나왔거나 나올 예정에 있을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십진분류법으로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어느 십진분류법보다 매우 크다. 그런데 DDC에서의 한국 지역구분은 의외로 너무 협소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확장 전개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미를 두었다.

기본 원칙은 첫째, DDC의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전개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이 확산되도록 한다. 다만 자국 우위의 기준으로도 전개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둔다. 둘째, 한국 지역의 추가적인 세구분과 항목의 배치는 UDC와 NDC, KDC, 그리고 행정구역 분류 방식을 참고한다. 셋째, 행정구역은 정치,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명칭, 소속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세분을 지양한다. 국가기관에서 설정한 행정구역 분류체계와 국내 우편번호, 시외전화의 가장 상위의 틀이 되고 있는 1특별시, 6광역시와 8도와 1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지역구분을 제한하고, 주요 행정 구역에 따른 지역구분의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국가지역구분체계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상위 범주를 UDC와 KDC 전개 방식을 적용하여 우리나라를 '북한'과 '남한'으로 양분하였다. 다음 단계로 북한은 '평양직할시', '관북지방', '관서지방', '해서지방', '기타 북한 지역'인 5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이는 NDC와 KDC의 구분 방식을 참고하

고, 항목명은 KDC를 준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남한 지역'인 9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이 때,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항목을 전개하되 KDC를 참고하여 각 광역시가 있는 도를 묶었다.

그리고 분류 항목을 배치하는 순서는 일차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배열하되 행정구역 상의 수도를 강조하여 북한은 평양직할시, 남한은 서울특별시를 최우선으로 배치하였다. 특히 남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다음에 도를 기준으로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이는 NDC의 한국 지리 구분과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 코드를 함께 적용한 것이다. 행정구역은 시대나 정권에 따라 통합·분리되는 가변적이고 인위적인 특성을 가지고, 지리 구분은 하천, 산맥 등 자연지물을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배치 순서는 인위적 기준과 자연적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자국 우위 기준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문자기호로 대체하는 방식과 번호로 이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도서관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DDC 23판 지역구분표에서의 한국 지역 구분 전개(안)를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DDC 23(2011)의 지역구분표에서 한국 지역 구분 전개(안)

-5 아시아	
-51 중국 및 부속 지역	

-519 한국*	

-5193 북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51931 평양직할시	
-51932 관북지방(함경남·북도, 량강도, 나선특급시)	
-51933 관서지방(평안남·북도, 자양도, 남포특급시)	
-51934 해서지방(황해남·북도, 개성특급시, 강원도 북한지역)	
-51939 기타 북한 지역	

-5195 남한, 대한민국	
-51951 서울특별시	
-51952 인천광역시, 경기도	
-51953 강원도	
-51954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51955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5195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	
-5195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51958 제주특별자치도	
-51959 기타 남한 지역	

(임의조항 A: 한국 519에 해당하는 숫자를 문자기호인 5K로 대체하고 북한은 5K3, 남한은 5K5로 부여하여 전개할 수 있다)	
(임의조항 B: -55 Iran을 -56 Middle East(Near East)로 합쳐 -56을 Middle East and Iran으로 하고, 공기호인 -568에 Iran을 이치시키고, -51을 한국, -52 중국, -53 일본, -54 아라비아 반도와 부속 국가, -55 인도와 인접 남아시아국가로 차례로 이치시켜 전개할 수 있다)	

5. 결론

분류기호는 간단하고 짧을수록 기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주제의 한 측면을 의미하는 기호를 다른 주제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보조표를 만들어 사용하면 조직이 단순해지고 분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게 된다.

본 연구는 주요 십진식 분류표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분 보조표에 관해 살펴보고 각 분류

표들이 지역구분을 어떻게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지역구분을 어느 정도로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듀이십진분류법의 한국 지역구분의 세분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단 DDC의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전개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이 확산되도록 하고 한국 지역의 추가적인 세구분과 항목의 배치는 UDC와 NDC, KDC, 한국행정구역 분류 방식을 참고하였으며 지나친 세분을 지양하였다. 그래서 한국

을 '북한'과 '남한'으로 양분하였고 북한은 '평양직할시', '관북지방', '관서지방', '해서지방', '기타 북한 지역'인 5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남한은 한국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항목을 전개하되 각 광역시가 있는 도를 묶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남한 지역'인 9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분류항목의 배치 순서는 일차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배열하되 행정구역상의 수도를 강조하여 북한은 평양직할시, 남한은 서울특별시를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순으로 배열하였다. 또한 자국 우위 기준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을 문자기호로 대체하는 방식과 번호로 이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도서관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국 지역 구분의 세부 전개는 지금까지 DDC에서 한국을 단순하게 남한과 북한으로만 전개하여 분류하였던 것을 보다 상세하게 구분하여 줄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십진분류법의 개정 작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 대한 개념은 정치적, 행정적인 성격의 기초에서 마련되므로, 이들 성격은 수시로 변화하고 연속성의 원리를 지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보조표의 활용도를 높이고 본표와 보조표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향후 한국 지역 구분을 위한 본표와 지역구분표 전개의 적절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십진식과 비십진식 분류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구동희. 2011. 우리나라 세계지역구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토지리학회지』, 45(1): 41-58.
- [2] 박철완. 2004.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135-154.
- [3] 박철완. 2009. 한국십진분류법 역사(900) 분야 개정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3): 149-161.
- [4] 김미덕. 2011. 지구화 시대 지역연구 지식의 재구성. 『국제지역연구』, 20(2): 127-154.
- [5] 김자후. 2011. 문헌분류법의 시·공간 전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5-20.
- [6] 김정임, 남태우. 2003. 주요 십진분류표에서의 보조표 비교 분석 연구: DDC, KDC, NDC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제10회 학술대회 논문집』, 83-94.
- [7] 김정현. 2012. 행정구역개편과 주민관계성 만족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49-75.
- [8] 김종천. 2000. 중국 현대 문헌 분류법의 보조표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 57-90.
- [9] 남태우, 백혜경, 이형미, 정수진. 2008. 문헌분류법에서의 지역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

- 보학회지』, 39(4): 189-214.
- [10] 오동근. 2001.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의 재전개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4): 79-95.
- [11] 우정사업본부. [online]. [cited 2012.7.8]. <<http://www.koreapost.go.kr>>.
- [12] 위키백과. [online]. [cited 2012.8.7]. <<http://ko.wikipedia.org>>.
- [13] 이은철, 광철완, 백항기, 이명희. 2003. DDC 한국관련 표준전개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1): 141-157.
- [14] 이창수. 1991. DDC 지역구분표의 변천과정. 『도서관학논집』, 18: 193-216.
- [15] 이창수. 1992. 『역사 및 지리류에 대한 조합식분류표의 전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6] 이창수. 2003. UDC 지리·전기·역사류의 특성과 KDC에서의 적용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125-145.
- [17] 이창수. 2008. UDC 표준판의 구조적 특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99-320.
- [18] 정필모. 2007. DDC 22의 보조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5-11.
- [19] 정해성. 1998.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보조표에 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8: 193-218.
- [20] 통계청. [online]. [cited 2012.8.7]. <<http://kostat.go.kr>>.
- [21]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십진분류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2] 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2.1.1 현재)』. [online]. <<http://www.mopas.go.kr/gpms/view/jsp/download/userBulletinDownload.jsp?userBtBean.bbsSeq=1021917&userBtBean.ctxCd=1059&userBtBean.orderNo=3>>.
- [23] 홍석준. 2010. 동아시아지역분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인류학적 성찰: “호남 지역문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석당논총』, 46: 95-123.
- [24] 國立國會圖書館. 2005. 『日本十進分類法』. 新訂 9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25]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2005.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London: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 [26] Bose, H. 1990.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 [27] Dewey, Melvil.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Ohio: OCLC.
- [28] Foskett, A. C. 1996.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London: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 [29] UDC Consortium. 2006. “Revised UDC tables.” *Extensions and Corrections to the UDC*, No.28(Nov. 2006): 101-159. 재인용: 이창수. 2008. UDC 표준판의 구조적 특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312-313.
- [30] UDC Consortium. [online]. [cited 2012.7.7]. <<http://www.udcc.org/mrf.htm>>.
- [31] WebDewey. [online]. [cited 2012.7.8]. <<http://connexion.oclc.org>>.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oo, Dong Hoe. 2011.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world regions in Korea: Problems and alternatives."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5(1): 41-58.
- [2] Kwak, Chul-Wan. 2004. "A study of Korean Geographic Area Classification System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2): 135-154.
- [3] Kwak, Chul-Wan. 2009. "A study of revision of the History Class(900) for the KDC 6th edi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3): 149-161.
- [4] Kim, Miduk. 2011. "Recomposition of knowledge on regional stud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0(2): 127-154.
- [5] Kim, Ja-Hoo. 2011. "A study on time & space division in literature classifi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5-20.
- [6] Kim, Jung-Yim, & Nam, Tae-Woo. 2003.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auxiliary tables of decimal classification: Focused on DDC, KDC, NDC."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10: 83-94.
- [7] Kim, Jeong Heon. 2012. "A study on satisfying degree of resident relationship in the situ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3(4): 49-75.
- [8] Kim, Jong Chun. 2000. "A study on the auxiliary tables of current 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 cod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20: 57-90.
- [9] Nam, Tae-Woo, Baek, Hae-Kyung, Lee, Hyung-Mi, & Jeong, Soo-Jin. 2008. "A study on the structure of geographical division in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189-214.
- [10] Oh, Dong-Geun. 2001. "Suggesting a table for religion of DD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4): 79-95.
- [11] Korea Post. [online]. [cited 2012.7.8]. <<http://www.koreapost.go.kr>>.
- [12] Wikipedia. [online]. [cited 2012.8.7]. <<http://ko.wikipedia.org>>.
- [13] Lee, Eun-Chul, Kwak, Chul-Wan, Paik, Hang-Gi, & Lee, Myeong-Hee. 2003. "A study on the standard relocations and expansions of DDC for Korea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4(1): 141-157.
- [14] Lee, Chang-Soo. 1991. "The change processes of area table in D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8: 193-216.

- [15] Lee, Chang-Soo. 1992. *A Study on the Synthetic Classification Scheme in the Fields of the History and Geography*. Ph.D. diss., Chung-Ang University.
- [16] Lee, Chang-Soo. 2003. "An analysis of geography, biography and history class in UDC and some suggestions on their applicable principles into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125-145.
- [17] Lee, Chang-Soo. 2008.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UDC standard edi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299-320.
- [18] Jeong, Pil-Mo. 2007. "An analysis on the tables of DDC 2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5-11.
- [19] Chung, Hae-Sung. 1998. "A study of auxiliary schedules in classifi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 193-218.
- [20] Statistics Korea. [online]. [cited 2012.8.7]. <<http://kostat.go.kr>>.
- [21]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9.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22]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Population in Korea*. [online].
<<http://www.mopas.go.kr/gpms/view/jsp/download/userBulletinDownload.jsp?userBtBean.bbsSeq=1021917&userBtBean.ctxCd=1059&userBtBean.orderNo=3>>.
- [23] Hong, Seok-Joon. 2010. "Th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the theory and methodology of area studies: The case study of area studies in Honam area, Korea." *Journal of Sokdang Academic Research of Traditional Culture*, 46: 95-123.